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요엘**

다른 신은 없다

(요엘 2:18-27)

원로목사 **이종윤**

제2계명은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으로 섬기는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my people)”이라고 하십니다.

1. 여호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2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일방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굽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며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우리의 모든 일을 합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지금,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풍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노예와 질병에서 자유 함을 주셨습니다.

2.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흠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19)

여호와에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번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번영을 누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요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큰 부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해야 할 바입니다.

물질의 번영은 인간의 힘이 되고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물질로 삼는 불경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단 4:30-31).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 7년 동안 몸을 병에 걸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이며, 높아지는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국가의 안녕을 주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아시아의 제사장적 국가가 되도록 하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지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과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잃어버린 기회도 다시 주시며 새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23절).

하나님은 때와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24절).

예전에 약속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5월 28일) 예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를 예배하고 그가 지정하신 수단만을 사용한다. 성실한 신자들은 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포용하여 받아들이고 실행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개혁과 정통주의자 존 오웬은 말한다. 존 오웬은 평생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성경에 충실한 개혁주의 교리를 선포하고 변증하였다.

지난 몇 년간 서울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사라지고 공허한 사람의 소리와 왜곡된 설교만 난무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한 서울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특히 2016년은 돌아보기조차 끔찍한 한 해였다. 고단한 삶을 말씀으로 치유 받고 하나님께 진정어린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실낱같은 마음이 짓눌리고 갈가리 찢어지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1. 서울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

예배의 기쁨으로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졌다. 5월 셋째 주부터는 본당을 개방하여 공간 나 오지 않았던 성도들도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그렇다. 서울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경건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렸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세상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었다.

2017년 1월 15일 안식년을 거부하고 이른 새벽 열쇠공을 불러 본당 문을 따고 들어가 강단을 점거한 박노철 목사의 가공할만한 행동에 성도들은 경악했다. 그 누구보다 교회의 정관과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담임 목사가 오직 자리 보존을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법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러고도 말마다 일마다 당회장권을 부르짖었다.

당회장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목사의 권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다. 소위 **1. 15 사태는 그 누구도 계획한 바 없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박노철 목사 본인도 그 날 이후 교회 출입을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였을까?**

2. 박노철 목사 지지 집회 인원 부풀리기를 알게 됨

박노철 목사를 추종하는 이들이 돌계단에서 집회를 시작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간 저들은 자체적으로 후보와 소식지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들의 후보에 기록된 집회 인원이다. 저쪽 후보에는 사실과 다른 집회 인원이 엄청나게 부풀려 기재되었고, 자기들은 주일에만 1300-1500 여명이 모이고 있으나 우리들은 300명도 안 된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이것이 소문일 뿐이었다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셨다. 집회 인원이 얼마나 중요 하길래 엄청난 숫자로 부풀려 성도들을 호도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3. 실제 인원 확인 점검, 부풀린 인원 확인 함

이에 3월 초순부터 돌계단 집회의 본격적인 인원 점검에 들어갔다. 전체 사진과, 부분별 사진, 돌성경 주변의 사진을 각각 찍고 확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20여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긴 덕에 대부분의 인적 사항은 물론 뒷모습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에 인원파악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10주가 넘게 철저하게 조사하여 오차율을 거의

없다. 조사 결과 1·2·3부, 1·2부, 2·3부 집회에 중복 참석하는 인원은 80-120명으로 저들의 후보 집계와 비교하면 2-3배의 인원 부풀리기가 물증으로 확보되었다. 중복하여 참여하며 웃을 바뀌입거나 모자를 쓰는 행위도 있었다.

또 집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교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지난 주만 보더라도 저들의 후보에는 집회인원이 988명이라고 기재되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복 인원을 배제하니 391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돌계단과 그 주변은 300명이 서있기도 힘든 공간이다.

4. 이상한 업무지시서

매주 줄어들고 있는 집회인원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박노철목사는 지난 5월 26일, 안전시설인 CCTV를 혐오시설이라며 철거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업무지시라며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이다. 이는 외부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CCTV가 저들의 치부를 날같이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몹시 불편한가 보다.

곧 무더위가 오고 장마철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집회를 해야 하는 저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박노철 목사 측은 아무 사정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곧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희망과문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진리와 진실은 하나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모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이 혼돈의 때로부터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를 지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남은 그루터기가 되자.

허 숙 권사 (편집부)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

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 메시야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6월 호국의 달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명신 권사 (11교구)

올 6월 25일은 어머니 고 백영희 권사님께서 돌아가신지 6년이 됩니다. 6월은 저에게나 어머니께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한 어머니로서는 6월은 너무나 가슴 아픈 달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중국에서 살던 어머니 가족은 조국 땅인 서울로 왔으나 막상 고향인 북한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무신론이 왕성한 북한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대구에서 오랜 동안 피난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증조 할머니는 가정 예배와 새벽예배를 거르신 적이 없었고 어머니 가족은 증조할머니의 기도를 힘입어 손자녀들까지 단

한명도 상하거나 흠어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환난과 전쟁 중에서도 주님만 믿고 기도하시던 증조 할머니 기도의 승리라고 생전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안보가 흔들린다고, 더불어 도덕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모두들 한숨입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이들은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생전 어머니께서는 결국 이 나라를 아껴 위에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의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전 어머니는 탈북자들의 비참함과 용천 참사



고 백영희의 권사

의 희생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베풀 수 없는 북한의 실상을 명백히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복음입니다.

생전 어머니는 증조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생히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또한 어머니께서 전쟁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것 처럼 저 또한 마지막 분단 국가인 조국을 위해 기도 할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최정숙 집사 (3교구)

♪ ♪ 웃니엘과 예후 삼갈 드 보라.....

♪ ♪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아사.....

이 노래들은 저희 다락방 나눔이 끝난 후 성경 통독 전에 부르는 것입니다. 유난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희정 성도님께서 몇 해 전부터 성경통독을 제안

하셨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올해 초 다락방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다락방 모임이 정상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성경 통독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인데 다락방 모임이 정상화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한다 마음 먹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많은지라 이번에는 사사 시대부터 왕조 시대 남·북으로 분열된 열왕기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 사사 이름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 보면 시대 시대 마다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들을 선택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매 모임마다 다락방 나눔을 마치고 5장 씩 읽다 보니 어느덧 루기도 끝나고 이번주부터는 사무엘상

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마다 '아 이때는 이랬었구나.', '아, 이 지파, 이 사람들은 또 이랬었구나.'..... 시간시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에 그저 감사 감사만 할 뿐입니다.

나눔과 성경 통독 두 가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지지만 모임을 마쳤을 때 뿌듯해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 빛되신 하나님 자녀들답게 얼굴 모습들에서 모두 모두 빛이 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저희 다락방 식구는 모두 여덟 명입니다.

하시는 일이 있어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늘 우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박미현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김명심 집사님, 말없이 겸손히 섬겨주시는 홍성미 부다락방장 집사님, 또 늘 열심히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시고 협력해주시는 홍영희, 이희정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소로, 시간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3-10 다락방 집사님들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 안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봅시다.



전도위원회 총회/다음주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어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여전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당회원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노종 이종윤 원로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의로우신 주님이 반드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속해 있는 전도위원회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회 회장이 서로 양분되어 있고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더더욱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도들도 잘 알고 있듯이 그 골이 깊어질 데로 깊어진 현실 앞에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게 되어 부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어 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본당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통합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총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참석하시어 교회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도록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힘들고 바쁘신 와중에도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에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오치열 장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평강에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파송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편지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교회와 서울교회성도님들께 사랑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4일
카자흐에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 올림

1. 가정교회의 정착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매주 한 번씩 드리는 가정교회예배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주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배와 하나님나라를 더 확장해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1기 집사 임명

교회창립11년 만에 처음으로 6명의 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집사들은 반드시 가정을 열어 작은 가정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집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3.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

5월5일-5월7일까지 3일 동안 알마타에서 가정교회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미르교회에서는 미라 그리고 사오닷 집사 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두분 집사는 이미 가정을 오픈하여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4. 미르교회 출신 마르잔(26세) 자매가 제주열방 대학에 입학하여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카자흐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회복이 교회 회복!

요한계시록강해
이종윤 원로목사

주일 오후 5시 찬양예배 시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발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50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9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등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6월6일(화) 몽골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축사와 명예총장상을 수여한다. 6월5일(월) 출국하여 6월8일(목)새벽 귀국한다.
 - 개업 : 이겸손 집사(10교구) (썬신우에프엔비 송파구 송파동 186-3 1층 3호)
 - 득남 : 3교구 김성광 성도, 김소영 성도 (김종철 집사 주성숙 권사 아들 가정)
 - 금주 식사 제공 : 송미라 권사 이시환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2.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3.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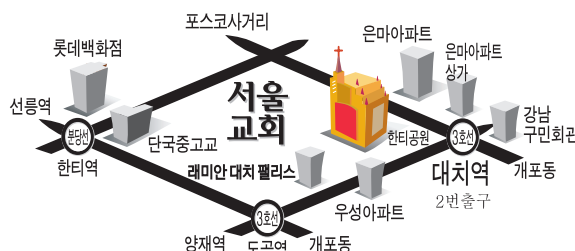


① 봄 운동회 : 예배 후 청백으로 나누어 운동회를 열어 즐거운 주일을 보냈습니다
② 청소년목장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